

보도자료

2011년 4월 13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750-2770)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고석봉 사무관(☎750-2777) ksb@kcc.go.kr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수준 지속적으로 향상”

- 보안서버 보급률 국가 순위 전년도 보다 2계단 상승 -

방송통신위원회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1년 세계 ICT 보고서(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0-2011)에 따르면 유일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가지수인 보안서버 보급률 순위가 조사대상 137개 국가 중 12위를 차지해 '10년도 14위에서 2단계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보안서버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등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함으로써 해킹 등의 불법 침해행위로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수단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실태점검, 제도 및 홍보와 중소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안서버 보급정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내 보급률이 크게 개선되어 국가 순위가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가순위 변동현황 >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49위	51위	16위	14위	12위

방송통신위원회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보안서버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까지 보안서버 보급률 국가순위를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하였다.

금년에는 77,0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금년 3월까지 68,225대를 보급하여 이미 8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안서버 보급현황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11. 3월말 기준)

구분	'11년 목표	보급실적	달성률
합 계	77,000대	68,225대	89%
민간부문	57,000대	53,217대	93%
공공부문	20,000대	15,008대	75%